

R-30. 중증치주염이 치수조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김병옥^{1,2}, 박영란¹, 장현선^{1,2}

조선대학교 치과대학 치주과학교실¹

조선대학교 치과대학 구강생물학연구소²

본 연구는 중증치주염에서 치수조직에 대한 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38개의 중증치주염으로 발견된 치아를 조직학적으로 검사하였다. 38개의 치아는 치수 생활력 검사(EPT, electric pulp test)에서 양성 혹은 음성 반응을 나타내었다. 뿐만 아니라, 38개 중 대부분의 치아들은 깊은 치주낭, 심한 동요도 및 전반적인 방사선투과상을 나타내었다. 의학적, 및 치료 병력이 검토되었다. 발견된 치아들은 10% 중성 포르말린 용액에 고정되었고, 통법에 따라 조직 제작과정이 수행되었다. 적절한 현미경 검사를 위해 치아를 포함한 조직이 hematoxylin-eosin 염색되었다. 38개의 중증치주염으로 발견된 치아들의 조직 소견상, 치수조직은 정상 소견이 12개 치아(31%)에서, 치수석(혹은 선상의 석회화)이 18개 치아(47%)에서 관찰되었다. 뿐만아니라, 17개 치아(44%)에서 다양한 정도의 치수 병변을 나타냈는데, 치수충혈, 치수농양, 치수괴사 등의 소견을 나타내었다. 38개의 중증치주염으로 발견된 치아 중에서 31개는 치수생활력 검사에서 양성 소견을 나타냈고, 7개의 치아에서 음성 소견을 나타냈다. 치수생활력에 양성을 보인 31개의 치아들은 다양한 치수조직 소견을 보였는데, 정상 소견 7개 치아(18%), 치수석 17개 치아(44%), 치수충혈 1개 치아(2%), 치수염 9개 치아(23%), 치근흡수 5개 치아(13%), 치수 농양 3개 치아(7%), 치수괴사 3개 치아(7%)의 소견을 나타내었다. 결론적으로, 중증치주염에 이환된 치아들은 치수생활력 검사에 양성 소견을 보일지라도, 치수조직에 염증을 야기시킬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